

청소년 가출 예방을 위한 가족복지 방안

엄 명 용 (인제대 교수)

I. 서 론

최근 들어 청소년의 가스 및 본드 흡입 문제, 마약 문제, 교내 외의 조직 폭력 문제, 소녀 윤락행위 문제 및 미혼모 문제 등과 관련하여 청소년 가출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사회 전반에 걸쳐 높아 가고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 비행 및 범죄가 부모의 통제를 벗어난 청소년에 의하여 행해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가출은 모든 청소년 비行的 출발점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청소년 가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우려는 가출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시각이 팽배해 있는 시점에서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지 못했음에 대한 지적 및 체적이라 생각된다.

가출 문제는 가족 해체의 신호이기도 하지만 가출의 결과가 가족 해체 현상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 나라의 힘은 경제적, 정서적으로 안정된 가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때, 가출이 지속, 확산되어 많은 청소년들이 가정밖 에 놓이는 현상이 벌어질 경우 가족의 기능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범죄 연령의 연소 화와 함께 전반적인 사회악이 증가함으로써 국가의 잠재력 또한 위협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가출의 실태를 올바르게 파악하여 그에 대한 예방책은 물론 가출 후 의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모, 학교, 사회 및 정부의 상호 협력에 의하여 속히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청소년 가출문제는 그 심각도 면에서 청소년 개인, 그들이 속한 가정, 지역사회 및 국가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예방책에 대한 연구는 미흡했다. 여러 선행 연구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었고 언론 및 대중매체들도 그 문제의 실상을 보도하여 사회문제로 부각시켰으나 선행 연구의 대부분 은 가출동기를 조사 및 논의하거나 사후 대책에 중점을 두었었고 언론이나 대중매체 들은 일회성 기사화에 그쳐 왔다.

많은 가출청소년이 결핍, 결손가정, 또는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가정으로부터 나온다고 할 때 (Rotheram, 1991), 가출청소년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문제의 가정에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라고 했다 (General Accounting Office, 1989).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채 가출 청소년들이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게 될 경우 문제의 가출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예방적 서비스의 내용이다. 어떠한 서비스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가정에 제공하여야 가출 예방기

능이 적절히 발휘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개인, 가족, 그리고 환경의 복합작용으로 보고 이 세 가지의 요인들 가운데 가출자와 비가출자 사이에 유의한 차를 나타내는 요인들을 찾아내어 가출예방을 위한 가족복지 서비스 모형의 기초를 제공하는 데 있다. 특히, 개인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의 영향을 걸러 내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보고, 가정의 구조, 생활양태, 가족에 대한 청소년의 만족도, 가족의 위기 대처능력 등의 세 요소들 중에서 가출과 비 가출로의 집단분리를 초래하는 요소들을 집중적으로 규명해 보고자 했다.

2. 국내외 연구동향

국내외의 선행 연구들은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집중적 연구의 방향만은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다. 국내에서 한완상(1978)은 가출 예방을 위해서는 권위주의적인 부모가 실질적 권위를 가진 부모로 바뀌어야 하며 청소년의 욕구를 충족 내지는 소화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가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표갑수(1980)는 청소년 가출의 원인으로 가정불화, 방임, 엄격, 빈곤 부모에 대한 불만 등 주로 가정적인 요인을 들고 그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우선 가족복지 사업의 강화를 주장하였다. 특히 가족기능의 원만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가를 통한 가족치료 및 가정생활 교육을 강조했다. 장인협(1982)은 가출의 원인을 개인, 가정 및 지역 사회적 요인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가정적 요인으로 가정내 불화, 부모들의 학대와 방임 및 극심한 빈곤을 지적하였고, 지역 사회적 요인으로는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선정적인 광고 및 퇴폐적 환경을 들었다. 가출 예방대책으로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를 통한 예방을 주장하고 이를 위해서는 특히 가족복지사업의 체계적 전달을 강조하였다. 가족복지 사업으로는 부모나 자녀들을 위한 교육의 강화와 문제가족들에 대한 상담제도 강화를 주장하였으나, 교육이나 상담의 초점 부분은 지적하지 않았다. 송정부 (1987)는 가출이 가출 청소년자신의 개인적 문제보다는 가정적 요인과 사회, 문화적 요인이 상호 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제일 대책으로 가족복지정책을 들었다. 가정복지정책으로는 빈곤가정이나 저소득가정에 대한 수입보장으로서 연금제도, 가족수당, 아동수당 및 가족부조 등의 제도의 실시를 요구하여 가출예방만을 위한 특별 가족복지 프로그램보다는 전반적 가족의 기능향상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이용교 (1993)는 청소년 가출은 합리적 인간관계의 부재의 당연한 결과로 보고 가출후 대책보다는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예방책으로서 올바른 청소년 이해를 위한 부모교육, 기본적인 인간교육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국외에서는 청소년 가출 문제의 원인을 청소년 자신의 문제, 가정이 안고 있는 문제, 사회환경 등에서 찾는 연구의 틀을 일찍부터 정착시키고 연구를 계속해 왔으나, 문제해결 및 예방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부족했다. Levine, Metzendorf & VanBoskirk (1986)는 청소년 가출의 원인을 주로 가족 내부에서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그 예로서는 (1)청소년과 부모간의 대화부족, (2)부모에 의한 유기, 학대 및 착취, (3) 부모의 비합리적 요구, 기대 및 제한, (4)가족내부의 균

열 등을 들었다. Sharlin & Mor-Barak (1992)는 가출현상을 부모의 불합리한 권위에 대한 반발로 해석하여 국내의 한완상 (1978)과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 Minuchin & Barcai (1972)는 가족에 위기가 엄습할 때 대응행동의 일환으로 가족구성원중에서 가장 약한 자가 이상행동을 표출시킨다고 주장하여 가출현상과 같은 이상행동이 가족의 병리현상을 나타내 주는 위기라고 보고 가족의 기능적 구조를 재구성하거나 재균형시킴으로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하였다.

국내의 연구의 공통점은 문제의 해결과 예방을 위해 가족에 대한 개입을 강조했다라는 점이다. 하지만 이들 연구들은 가출청소년과 비가출 청소년 가정을, 문제시되는 제 요소 면에서 경험적으로 비교하지 않았다는 공통점도 갖고 있다. 대개의 연구가 가출 청소년들에게 가출의 이유를 물어서 그 답으로부터 문제의 요인을 추출해 냈다. 이것은 가출 청소년 가족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만을 부분적, 표면적으로 서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가족이 맞고 있는 각종 위기상황,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가족내의 여러 가지 자원 (예: 가족 구조, 상호 교류관계, 내부 응집력, 대화형태, 위기관리 및 대응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가출집단과 비가출집단간의 분리를 일으키는 제 요소를 찾아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가출문제 예방 및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 각 가정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가출자를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없이 집을 떠나 24시간 이상 돌아오지 않는 18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정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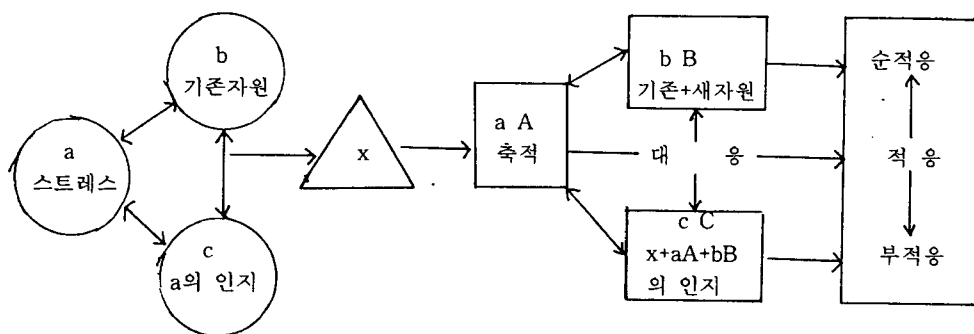
II. 이론적 틀

국내외의 여러 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청소년 가출은 가출 청소년 개인의 문제라기 보다는 청소년들이 속해 있는 가족의 상황과 관련하여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가족에 가해지는 각종의 요구들에 대해서 가족이 어떠한 자원들을 동원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대한 이론적 틀이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Hill (1958)의 ABC model과 McCubbin & Patterson (1983)의 Double ABCX model이 그것이다. 이들 모델들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나 곤란에 대한 가족의 대응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출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된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Double ABCX model을 구성하고 있는 변수들과 관련지어 각 요인별로 분류하였다.

가족 스트레스 및 대응에 관한 Double ABCX model은 가족 스트레스와 위기에 관한 Hill (1958)의 ABC model에 기초를 두고 있다. Hill의 ABC model에 의하면 가족의 위기(x 요인)는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일련의 사건들 및 곤란들(a 요인), 이러한 요구들에 대응하기 위해 가족 내에 존재하는 자원들(b 요인), 그리고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에게 부여하는 의미 또는 사건에 대한 인지(c 요인) 등이 상호 작용한 결과로서 나타난다고 보았다.

Double ABCX model에서는 ABC model에서 제시한 각 요인들에 더하여 위기상황 이후의 가족의 대응 과정과 관련된 변수들을 추가하였다. 위기상황 (x 요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스트레스 유발성 사건 또는 곤란들이 축적되는 상태를 가족에게

주어진 대응과업의 축적 (pile-up, aA 요인)이라고 보았고, 이러한 축적된 스트레스성 사건 및 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족이 동원하는 기존의 또는 새롭게 동원되는 자원을 bB 요인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위기이전에 가족에 부과된 스트레스성 사건 및 곤란 그리고 그후에 축적된 대응과업들을 가족이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가 또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를 cC요인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상의 aA, bB 및 cC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통한 대응활동의 결과가 부적응(maladaptation) 또는 순적응(bonadaptation)의 상태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림 1>은 이러한 과정들을 그림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그림1> The Double ABCX Model (McCubbin 과 Patterson, 1983a, p.12 에서 인용)

Hill의 ABC model에서 첫 번째 구성요소(a 요인)에는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사건 (stressor)과 곤란 (hardships)이 포함된다. 스트레스요인 (stressor)은 가족체계내의 변화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가능성을 지닌 채 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 속의 사건들이나 급격한 변천으로 정의된다 (McCubbin & Patterson, 1983). 곤란은 스트레스 유발성 사건들(stressor)과 관련되어 가족에게 부과되는 요구(demand)이다. 갑작스런 의료비의 조달, 신체상 불구가 된 가족원을 돌보는데 필요한 시간과 자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스트레스 유발성 사건과 그에 따른 부담이 장차 가족이 대응해야 할 과제로서 발생한다.

가족에게 주어진 과제(a 요인)를 해결하기 위해 동원되는 가족자원(Hill의 B요인)은 가족의 변화가 위기상황에까지 도달되지 못하도록 방지할 수 있는 가족의 총체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Burr, 1973). 여기에는 가족간의 공동관심, 애정, 경제적 상호의존 등으로 특징 지워지는 가족의 총체성 또는 응집력과, 위기상황을 맞아 가족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적응능력, 가족생활에서 얻어지는 만족감 등이 포함된다. 그밖에 사회적 지지망의 적절한 사용이 포함되는데 Caplan (1976)은 확대가족으로부터의 도움을, Litwak & Szelenyi (1969)은 친구나 이웃으로부터의 도움을 사회적 지지망에 포함시켰다. 문제해결을 위한 가족의 접근방법 (Aldous et al., 1971; Klein & Hill, 1979) 또한 가족의 자원에 포함된다.

Hill의 ABC model에서 c 요인은 가족이 스트레스성 상황에 부여하는 의미, 또는 상황의 평가 및 사정(appraisal)을 의미한다. 가족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정정이 왜해되거나 무기능상태에 빠지는가의 여부는 그 사건에 대한 가족 나름대로의 주관적 설명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발생한 사건을 가족이 어떻게 받아들이며, 발생한 이유를 어떻게 정의하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변환경이 어떻게 동원되고 배열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 등에 따라서 위기가 발생되기도 하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미 발생한 유사한 스트레스성 사건들이나 곤란들에 대해 어떤 가족은 보다 긍정적으로, 보다 이성적으로 인지함으로써 해볼만한 하나의 도전이라고 받아들이는 반면, 어떤 가족은 그러한 사건들을 감당할 수 없는 사건으로 여기거나 가족과 멀의 전조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Gerhardt, 1979).

Hill의 모델에서 마지막 요인인 위기상황(x 요인)은 가족체계내의 붕괴, 혼란, 또는 무기력상태를 의미한다. 이것은 단순한 스트레스 또는 스트레스성 사건과는 구별되는 개념인데 스트레스, 즉 요구가 아무리 커도 그에 대응하는 자원의 양이 풍족하면 위기는 발생하지 않는다. 위기는 가족에 존재하는 자원이 가족에 쏟아져 내리는 요구들을 감당할 만큼 충분치 않을 때 발생하는 것이다.

축적(pile-up)(aA 요인)에는 가족체계 또는 가족구성원들이 사회 속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유발사건 및 곤란, 전에 해결되지 않은 갈등, 가족의 발달에 따라 요구되어지는 과업, 가족 대응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일들, 그리고 가족 내외에서 맞이하는 불확실성 등이 포함된다.

가족의 대응적 자원(bB 요인)은 크게 나누어 기존의 자원과 확충된 자원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자원을 구성하는 요소는 각 가족구성원, 가족체계 및 지역사회에 따라 결정된다. Hill의 ABC model에서 처럼 가족자원을 구성하는 요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적 지지이다. 친구, 직장 동료, 이웃 및 종교기관 등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가족은 주요 위기 상황에 잘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빨리 안정을 회복할 수 있다.

사건에 대한 가족의 정의 및 의미부여로 일컬어지는 cC 요인은 새로이 발생하는 사건이나 곤란에 대한 주관적 의미에 더하여 이미 위기 상황을 발생시킨 사건이나 곤란을 성장을 위한 기회나 해볼만한 도전 또는 가족의 적절한 대응을 촉발시킨 유익한 사건들로 재인식하는 것을 포함한다.

Double ABCX 모델의 마지막 요소인 xX 요인은 앞서의 aA, bB 및 cC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빚어내는 대응과정의 결과를 의미한다. 이것은 순적응과 부적응의 양방향에 걸친 연속개념으로 표현되는데 순적응은 가정에 부과된 여러 가지 요구와 그에 대한 갖가지 자원들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져 가정이 안정을 찾고 흠없이 보전된 상태를 의미한다. 반면에 부적응은 첫째, 가정의 고결성이 깨졌거나 악화된 상태, 둘째, 가족 구성원 또는 가족 전체의 건강, 안녕, 발달 등이 악화된 상태, 마지막으로 가족의 독립성 또는 자율성이 상실됐거나 퇴보된 상태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Hill의 ABC model과 McCubbin & Patterson의 Double ABCX model에 입각하여 가출현상을 파악하고자 했으며, 여기에 가출행동은 반드시 어떠한 욕구불만, 정신갈등을 경험한 후 비로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본 송정부(1987)의 견해를 결합하였다. 송정부(1987)는 충족되지 않은 욕구나 갖가지 갈등상황은 청소년의 생

활환경속의 갖가지 관계에서 오며, 청소년 가출은 욕구불만 상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자원이거나, 갈등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자원 및 도움을 확보하지 못한 약자의 갈등 회피현상이라고 하였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청소년 가출을 청소년 개인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청소년이 속한 가정이 생활환경 가운데서 생활해 가다가 일련의 스트레스 유발성 사건이나 곤란을 만난 후, 그에 대처하기 위해서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또한 사건이나 곤란들에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거나 의미를 재구성하는 등의 총체적 대응작용의 결과로서 빚어진 하나의 회피현상 또는 부적응 (maladaptation) 형태로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가출이라는 가정의 위기 상황에 작용하는 각종 변수들의 작용 과정을 규명하기보다는 이들 변수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는 변수의 확인을 통해서 가출과 비가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분리해 내는 분리변수를 추출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방법

가족위기상황의 표출형태인 가출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가정적, 환경적 요인들을 가출과 관련된 국내의 연구들로부터 확인해 낸 다음, 그 변수들을 앞서 제시한 McCubbin과 Patterson(1983)의 Double ABCX Model에 근거하여 aA, bB, cC 등의 요인으로 나누었다. 결과변수인 xX 요인으로서는 부적응 현상의 한 형태인 가출을 대입하였다. 각 요소들이 결합하여 순적응 상태를 나타낸 것을 비가출 청소년 가정으로 보았다. aA, bB 및 cC를 구성하는 각 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기구술형 설문지들이 사용되었다.

1. 설문도구

1) aA 요인 (스트레스 유발성 사건 또는 곤란) 측정을 위한 도구

가) 충격적 사건 또는 곤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 또는 곤란한 일들이 청소년들의 삶속에서 발생하였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Coddington (1972)의 Life Events Inventory for Junior High School이 사용되었다. 원래의 목록은 총 40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한국의 문화적 상황에 적당하지 않거나 이해가 불분명한 문항 7 항목을 제거하여 33 항목만이 사용하였다. 청소년들로 하여금 지난 1년 남짓 사이에 그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였는지를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하게 한 후, 표시된 각 항목마다 부여된 충격지수의 합으로 aA 요인의 양을 측정하였다.

2) bB 요인(가족내부의 자원) 측정을 위한 도구

가) 가족 적응력 및 응집력

가족의 적응력 및 응집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Olson, Portner, & Lavee (1985)의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III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응력 및 응집력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이 각각

10문항으로 나누어져 있다. 주어진 각 문항을 읽고 그 문항이 자기 상황과 비교해 “거의 그렇지 않다”면 “1”에, “아주 드물게” 그렇다 면 “2”에, “가끔” 그렇다 면 “3”에, “자주” 그렇다면 “4”에 그리고, “거의 항상” 그렇다면 “5”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 수록 적응력 및 응집력 모두가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표본을 통한 알파 신뢰계수는 각각 0.69 (적응력)와 0.81 (응집력)이었다.

나) 의사소통 형태

가족내의 의사소통 형태를 측정하기 위해서 Epstein, Baldwin, & Bishop (1983)의 McMaster Family Assessment Device 중에서 의사소통 형태 측정 항목 6 문항만을 활용하였다. 리커트 형태로 각 문항마다 1, 2, 3, 또는 4로 답하게 하였다. 점수가 높을 수록 의사소통 형태가 명백하고 직접적임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표본을 통한 알파 신뢰계수는 0.60이었다.

다) 자원동원 형태

가족이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가족내부의 자원과 가족외부의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동원하는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McCubbin, Larsen, & Olson (1985)의 Family Crisis-Oriented Personal Evaluation Scales를 사용하였다. 여기에는 bB 요인으로서 이웃 및 친척들로부터의 도움, 종교활동을 통한 영적 지지의 획득, 전문기관을 통한 도움 등 세 가지 하위 척도가 포함되어 있다. 1 - 5 까지의 리커트 형태의 답을 유도하였다. 높은 점수는 자원의 양이 많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표본을 통한 알파 신뢰계수는 차례로 각각 0.74, 0.77 및 0.59이었다.

라) 개인의 성격적 특성

가족구성원인 개인의 특성이 bB 요인에 속함으로 (McCubbin, & Patterson, 1983),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개인의 특성중 가출과 관련된다고 생각되는 일부 성격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Jackson (1989)의 Personality Research Form E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중 개인의 자율성, 인내성, 충동성 등을 측정하는 항목만을 선택하여 주어진 문장에 대하여 “그렇다” 또는 “아니다”로 답하게 하였다. 점수가 높을 수록 자율성, 인내성, 또는 충동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세 가지 특성에 대한 알파 신뢰계수는 차례로 각각 0.61, 0.61 및 0.64이었다.

마) 가족과 주변생활에 대한 만족도

가족과 주변환경의 삶에 대한 만족감 또한 b 요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으므로 (Hill, 1958),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을 둘러싼 가족 및 주변환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Olson, & Barnes (1985)의 Quality of Life for Adolescents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년들이 자기 가족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를 1-5까지의 수로 표시하게 되어 있다. 높은 점수는 삶에 대한 만족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알파 신뢰계수는 0.80이었다.

바) 부 또는 모의 부재 여부

가족내에 부모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것이 가족의 자원 동원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하여 부모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를 “1”, 부모중 어느 한 분이 없거나 부모 모두 없는 경우를 “0”으로 부호화 하였다.

3) cC 요인 측정을 위한 도구

가) 사건에 대한 의미 부여

가족에게 닥친 위기상황을 가족 나름대로 주관적인 의미부여를 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McCubbin, Larsen, & Olson (1985)의 Family Crisis-Oriented Personal Evaluation Scales 중 사건이 가져다주는 의미의 재구성 (reframing) 부분을 사용하였다.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1-5까지의 리커트 형태의 답을 유도하여 점수화 하였다. 높은 점수는 의미 재구성의 정도가 큼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표본을 통한 알파 신뢰계수는 0.69이었다.

나) 책임소재에 대한 의식(locus of control)

청소년 개인의 입장에서 자신이나 가족에게 일어나는 사건 또는 곤란을 자신의 책임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사회 또는 외부적 요인의 탓으로 돌리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Nowicki-Strickland (1973)의 Nowicki-Strickland Internal-External Control Scale for Children을 사용하였다.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어진 문항에 대해 “그렇다” 또는 “아니다”로 대답하도록 되어 있다. 낮은 점수는 문제나 어려움의 탓을 자기자신에게 돌림을 의미하고 높은 점수는 사회환경이나 기타 외부적인 탓으로 돌림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표본을 통한 알파 신뢰계수는 0.70이었다.

4) xX 요인의 측정

부적응(maladjustment)의 한 형태로 표출된 것을 가출사건으로 보았고 순적응(bonadjustment) 상태의 유지를 가출하지 않은 상태로 보았다. 가출을 “1” 로, 비가출을 “2” 로 부호화 하였다.

2. 설문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설문지를 이용하여 가출청소년과 비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가출 청소년들은 서울과 부산의 두 지역에서 표집되었다. 서울지역에서는 서울시립아동상담소에 보호되고 있는 아동들 중에서 가출한 사례만을 구별하여, 가출 아동을 보호 지도하고 있는 분이 감독하는 가운데 설문지에 답하는 형식으로 자료가 수집되었다. 부산지역에서는 소년감별원에 보호중인 아동 및 청소년들 중에서 가출 사례만을 대상으로 지도 선생님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서울과 부산을 합해 총 188 명의 가출 아로 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나 일부항목에 대한 기입이 누락된 4 사례를 제외하고 184 사례가 자료분석에 이용되었다.

비가출 청소년 집단은 가출 청소년과 연령 및 성별을 결합(match)하여 가출사실이 한 번도 없는 일반 중고등학교 학생중 표집하였다. 서울과 부산에 있는 학교중 무작위 균집표집방법을 사용 표집하였다. 서울과 부산에서 총 280 사례가 표집되었으나 이중 3 사례는 일부 항목에 기입이 누락되었거나 같은 번호에 일률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 일차적으로 제외되었고 나머지 277 사례 가운데 34 사례는 충격적 사건 또는 곤란의 발생 여부를 측정하는 도구에 지난 1년에 기간동안 아무런 사건이나 곤란을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출집단과의 비교 편의를 위해 이차적으로 제외되었다. 나머지 243 사례가 남았으나, 통계 분석에 있어서 제일종 오류(type I error)의 감소와 통계적 검증력(power)의 강화를 위해 가출 청소년의 표집 크기와 같은 184 사

례를 단순 무작위 표집법으로 추출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먼저 가출집단과 비가출집단이 연령 및 성별 면에서 유사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연령에 대해서는 티 검중(t-test)을 성별에 대해서는 카이 검중(chi test)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중다변인분석의 가정을 만족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 정상분포 및 다중 변량 동질성 여부를 검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서 제시된 aA, bB 및 cC의 요인들중 어느 변수가 가출집단과 비가출 집단을 가장 효과적으로 분리시키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별 판별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IV. 결과

1. 결합변수면에서의 두 집단의 유사성

연령에 대해 가출 및 비가출 집단 사이의 티 검중(t test) 결과 두 집단은 연령상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t=-1.26$, $df=366$, $p=0.21$). 가출집단의 평균 연령은 14.38, 비가출집단의 연령은 14.58세이었다. 성별과 두 집단을 카이 검중한 결과 두집단에 여성과 남성이 유사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22$). 가출 집단에는 남자가 134명, 여자가 49명이었으며, 비가출 집단에는 남자가 124명, 여자가 60명이었다. 따라서 연령과 성별면에서 두 집단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중다변인 분석의 가정 검증

한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변수들이 개별 변량 동질성 면에서 동질이라고 판단이 났으나 중다 변량 동질성 면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1$). 하지만, Stevens (1986, p. 216)는 의하면 표집의 크기가 동일할 경우 실제의 제일종 오류와 명목상 제일종 오류가 동일함을 여러 모의 검중의 예를 들어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집의 크기가 동일함으로, 중다 변량의 이질성에 상관없이 통계적 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중 정상분포를 조사한 결과 다중 비정상 분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한 변수(충격적 사건 또는 곤란)를 찾아내어 정상분포로 전환하기 위하여 자연로그 변환(Natural log transformation)을 하였다. 이후 다중 정상분포 가정이 충족되었다.

3. 단계별 판별분석 결과

1) 주요변수 추출 및 판별식 산정

총 14개의 예언(독립) 변수들 중 중요 변수들의 선형결합으로 만들어진 판별식이 청소년들을 가출자 집단과 비가출자 집단으로 어느 정도의 정확성을 갖고 분리해 내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비가출 집단 및 가출 집단을 각각 두 개의 집단으로 다시 나누

었다. 즉, 각 집단에서 약 40%의 자료수(N=148)를 각각 무작위로 추출하여 판별식(discriminant function) 산정을 위한 분석 표본으로 사용했고 나머지 자료들(N=220)은 나중에 판별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검증 표본으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판별의 정확도가 부풀려지는 현상을 통제할 수 있다.

단계별 판별분석에 들어가기 앞서, 총 14개의 독립 변수를 총체적으로 고려할 때 가출자 그룹과 비가출자 그룹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검증하였다. Wilks' Lambda (0.647)에 의한 검증에서 포괄적 유의도는 유의도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0). 따라서 두 그룹은 14개의 변수를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두 그룹간에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판별식 산정을 위한 과정으로 들어갔다.

판별식(discriminant function)은 최대한의 집단 분리를 일으키는 기능을 갖춘, 예언(독립) 변수들의 선형 결합체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집단만이 존재하므로 한 개의 판별식만이 단계별 추출방식에 의해 추출되었다. 총 14개의 예언 변수중 6개의 변수만이 판별 변수로 선택되어 판별식에 포함되었다. 추출된 판별식은 유의도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p=0.000; Wilks' Lambda=0.5515; chi-square=85.084, df=6). 추출된 판별식에 대한 집단변인 상관계수(canonical correlation)는 0.6697이었다. 이것은 판별기능의 약 45%가 집단 변수(가출, 비가출)에 의해서 설명되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 아이겐 수치(Eigen value)는 집단간 자승화값을 집단내 자승화값으로 나눈 수치인데, 본 연구에서는 0.8130을 나타내 판별기능이 우수함을 나타내 주었다. <표 1>은 최종 선정된 변수별 판별함수 계수를 나타내 주고 있다. 표준화된 판별계수(standardized canonical discriminant coefficient)는 각 변수들이 대상들의 소속집단을 판별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개략적으로 나타내 준다. 가족 내에 부모가 두분 모두 있는지의 여부와 생활속에서 맞부딪히는 충격적 사건이나 곤란한 일들의 양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sher의 선형판별식(Fisher's linear discriminant functions)은 집단을 판별하는 데 이용되는 점수를 구하는 데 사용된다. 각 개인에 대한 변수별 점수에 해당되는 판별계수를 곱하여 개인별 점수를 구한 다음 큰 값을 나타내는 집단에 개인을 배치한다.

<표 1> 선형 판별계수

변 수	표준화된 판별계수	Fisher의 선형 판별식 계수		
		집단=	가출자 집단	비가출자 집단
가족, 주변생활에 대한 만족도	-.33469		.4590899	.4129342
사건에 대한 인지	.33724		.7230293	.8420941
자율성	.27686		.0633634	.2575281
책임소재에 대한 인식	-.36818		1.0683429	.8969642
충격적 사건, 곤란	-.51717		10.4913254	9.2970774
부 또는 모의 부재	.62518		4.1815595	6.9449902
상수(Constant)			-59.9414427	-55.1989085

<표 2>는 각 변수들과 선형판별체 사이의 상관관계를 집단별로 계산한 후 합친 수치를 나타내 주고 있다. 추출된 주요 변수들과 선형 판별체 사이에는 다른 변수들에 비해 비교적 높은 상관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중 한 사람 또는 모두의 부제가 판별체와 가장 큰 상관을 보여주고 있다. 삶속에서 발생한 충격적 사건이나 곤란 등이 그 다음으로 높은 상관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사건에 대한 의미 부여, 책임의식의 소재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변수들과 함께 포함되었던 다른 변수들과 선형 판별체와의 상관은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형 판별체에 주요 변수로 추출된 가족, 주변 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자율성이 선형 판별체와 낮은 상관을 보이는 것은 선형 판별체에 속한 다른 변수와의 상관이 기타 변수들 사이의 상관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선형 판별체에 대한 기여도가 분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율성 : 책임소재, 상관계수=.38; 만족도 : 사건에 대한 의미부여, 상관계수=.40)

<표 2> 판별체와 판별 변수와의 상관 계수 (Pooled Within-Groups Correlations)

변 수	상관 계수
부 또는 모의 부제	.70753
충격적 사건, 곤란	-.61268
사건에 대한 인지	.37923
책임소재에 대한 인식	-.32864
충동성	-.22676
의사소통 형태	-.19887
사건에 대한 인지	.16076
가족의 응집력	.14093
이웃 및 친척의 도움	.11484
종교를 통한 영적 도움	.11387
가족의 적응력	.09245
인내성	.08256
가족, 주변생활에 대한 만족도	.03379
자율성	.01166

2) 판별식에 의한 집단 분류의 정확성

판별식이 얼마나 실제의 집단을 잘 분류하여 주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판별식 도출에 사용되지 않은 유보집단을 판별식에 의해 분류해서 생긴 예측집단과 실제 소속 집단을 비교 검사해 보았다. <표 3>에서 대각선상에 분류된 청소년들은 판별식이 정확히 분류한 경우이다. 110명중 82명 (74.5%)에 해당하는 가출 청소년들이 정확히 분류되었으며, 110명중 90명 (81.8%)에 해당하는 비가출 청소년들이 정확히 분류되었다. 정확히 분류된 표본의 수를 전체표본의 수로 나눈 비율을 hit ratio라 한다. 여기서의 hit ratio는 78.1%로서 우연에 의한 확률 (50%)보다 월등히 높았다.

<표 3> 유보집단을 사용해 검정한 분류 결과

실제 집단	집단의 크기	예측 집단	
		가출자 집단	비가출자 집단
가출자 집단	110	82 (74.5%)	28 (25.5%)
비가출자 집단	110	20 (18.2%)	90 (81.8%)

(정확히 분류된 표본의 비율, hit ratio = 78.18%)

일반적으로 hit ratio만 보고 분석이 잘되었는지를 알 수 없으며 이를 파악하기 위해 C_{max} 와 C_{pro} 라는 두 가지 기준을 사용한다. C_{max} 는 전체집단을 표본의 수가 가장 많은 하나의 집단으로 분류하였을 경우의 hit ratio를 말하며, C_{pro} 는 각 대상을 무작위로 집단의 크기에 의한 사전확률에 따라 분류하였을 경우의 hit ratio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두 집단의 크기가 동일하므로 C_{max} 와 C_{pro} 의 값이 동일하게 0.5이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hit ratio가 C_{max} 나 C_{pro} 보다 20-30% 정도 크면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볼 때 (채서일, 1994, p. 547), 본 연구에서는 hit ratio가 C_{max} 나 C_{pro} 보다 무려 56.2% 크게 나타나 판별식에 의한 가출 및 비가출 집단의 분류가 만족스러움을 보여 주었다.

V. 논의 및 제언

현재까지 가출과 관련된 각종 연구를 통해 제기된 가출 관련 변수들을 Hill (1959)의 ABCX model과 McCubbin & Patterson (1983)의 Double ABCX model에 따라 분류한 다음, 이들 여러가지 변수들 중에서 가출집단과 비가출집단을 가장 효율적으로 분리시키는 요소들을 찾아보았다. 각 요소들의 선형결합체인 판별식의 정확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판별식 추출에 사용되지 않았던 표본을 갖고 검증해 보았다. 총 14개의 변수중 6개의 변수가 판별식에 포함되었고 판별식의 정확도는 사회과학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네개의 변수 전체를 판별식에 포함시켜 판별식의 정확성을 검증해 보았을 경우의 정확도(hit ratio)는 79.09%였다. 이수치는 6개의 변수만을 포함시켰을 경우의 78.18%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그간 여러 연구에서 이론적으로 지적되었던 가출 관련변인들 중에서 많은 부분이 가출과 비가출을 구분짓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영향을 주더라도 그 힘이 미약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론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가출 관련 변수들 중에서 경험적 분석을 통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수를 찾아낸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판별식에 포함된 변수들을 기초로 해서 가출 가능성이 큰 청소년을 정의해 보면, 어머니나 아버지 또는 양친 모두가 없는 가운데 살면서, 자신들을 둘러싼 환경 속에

서 충격적 사건이나 여러가지 어려움 등을 겪고 있으며, 자신들의 가족이나 주변환경에 대해 불만족해 하고, 이들 어려움과 불만족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청소년,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감당해 내야 할 하나의 도전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부정적이고 패배적으로 받아들이는 가정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 성격적인 면에서는 자율성이 희박하여 무엇이든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할 수 없는 청소년이었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리라 생각했던 가족내의 응집력, 적응력, 의사소통의 형태, 청소년 자신의 충동성, 인내력의 부족, 이웃이나 친지들로부터의 도움, 전문 서비스 기관으로부터의 도움, 종교를 통한 영적인 도움 등은 가출집단과 비가출집단을 분리하는데 별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한 편으로는 이들 개념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 도구들의, 본 연구의 표본을 통해서 산출된 신뢰도가 비교적 낮았다는 데서 개념의 정확한 측정에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가출자 또는 비가출자 청소년을 통해서 자신들의 가족 상황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묘사해 보도록 하였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족역동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점도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가출에 주는 영향을 차례로 살펴보고 가출자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가족복지 서비스에 대해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이 청소년이 자라고 있는 가정 내에 부모가 모두 존재하는가의 여부이다. 이것은 가정의 구조적 결손이 곧 기능적 결손을 초래하고 있다고 해도 무리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동 및 청소년은 아직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미성숙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부모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의존의 대상이 결핍되어 있을 때,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각종 요구(demand)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가출이라는 도피적 행동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가족의 중심 역할을 하는 부부가 자녀들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부모 모두 또는 부모중 한 사람이 부재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본 연구에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여러 연구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경제적인 빈곤, 부부간의 불화, 질병이나 사고, 또는 해외거주 등이 그 원인이다. 이에 따른 대책들이 각각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부부가 가정을 이루기 전에 배우자 선택이나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등에 대한 이해와 책임을 통감할 수 있는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의 삶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충격적 사건이나 곤란들이 가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Hill (1958)의 ABC 모델이나 McCubbin & Patterson (1983)의 Double ABCX 모델, 그리고 Selye (1976)의 생리적 스트레스 이론, Lazarus (1966), Lazarus & Launier (1978) 및 Lazarus & Folkman (1984) 등의 심리적 스트레스 이론들에서 주장된 바와 같이 청소년들을 둘러싼 환경으로부터의 각종 요구와 이들을 처리하기 위한 각종 자원들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하여 장기화 될 때 위기가 오고 위기로부터의 탈출 행동이 가출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충격적 사건이나 곤란에 해당하는 것들을 몇가지 살펴보면, 혼전 임신(당하거나 시킴), 부모의 이혼 또는 별거, 술이나 가스의 흡입, 친구들의 따돌림, 갑작스런 성적의 하락, 부모의 질병, 각종 징계, 부모와의 충돌, 식구중 하나가 떠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일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까이에서 청소년들의 삶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가족기능을 보충, 지지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는 학교 선생님이나 학교의 상담교사를 통해 학생의 이상행동이나 갑작스런 성적 하락 등이 포착되었을 때,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이 속한 가정과 주변환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살필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학교 사회사업과 가정복지사업이 합동으로 연계되어 실시되어야 가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자신들의 가족이나 주변환경에 대해 불만족해 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청소년의 삶가운데 경험하는 충격적 사건이나 곤란들과는 관계없이 나타나는 불만이다 (상관계수, $\alpha=0.18$). 반면에, 이러한 불만들은 가족의 응집력과 밀접한 상관을 보였다 (상관계수, $\alpha=-0.61$). 가족원끼리의 응집력이 낮을수록 불만은 높았다. 가족 및 주변환경에 대한 불만은 삶속의 사건이나 곤란에 대한 가족의 전반적 인식, 또는 긍정적 의미 부여와도 어느정도 상관을 보였다 (상관계수 $\alpha=-0.40$). 즉, 가족원들 사이에 응집력이 없고 따라서 가족에게 닥치는 어려움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에서 청소년들은 가정이나 그 밖의 생활환경에 대해 불만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응집력 제고를 위한 가족치료사업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가출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의 가정을 조사하여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관계 패턴을 확인하여 응집력 면에서 문제가 포착되면 그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가정에 닥치는 어려움들을 부정적이고 패배적으로 받아들이는 가정 분위기를 쇠신하기 위한 전문가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지치료를 통한 비이성적 현실인식의 교정은 물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치료 (empowering therapy)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격적인 면에서 어려움과 불만족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면서, 무엇이든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할 수 없는, 다시 말해 자기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대책이다. 성격적인 면을 수정한다는 것은 가족 상호관계 패턴이나 환경을 고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한다 (Burke, Shearer, & Deszca, 1984; Leiter & Maslach, 1988). 하지만,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점차적으로 길러 주기 위해서는 가족과 학교 생활 속에서 각 구성원들 사이의 심리 사회적 경계 (boundary)문제를 확실히 해 주는 치료와 상담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이용교(1993). 한국 청소년 복지의 현실과 대책. 서울: 은평 천사원.
- 송정부(1987). 청소년의 가출원인과 대책. *청협*, 11 (4), 18-23.
- 장인협(1982). 청소년 비행과 가출. *안산*, 16, 6-9.
- 채서일(1994). 사회과학 조사방법론 (2판). 서울: 학현사.
- 표갑수(1980). 청소년 가출의 요인과 대책. *안산*, 하계호, 22-26.
- 한완상(1978). 민중과 지식인. 서울: 정우사.
- Aldous, J., Condon, R., Hill, R., Straus, M., & Tallman, I. (1971). *Family problem solving*. Hinsdale, IL: Dryden.
- Burr, W. (1973). *Theory construction and the sociology of the family*. New York: John Wiley & Sons.
- Burke, R. J., Shearer, J., & Deszca, G. (1984). Burnout among men and women in police work: An examination of the Cherniss model. *Journal of Health and 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 7 (2), 162-188.
- Coddington, R. D. (1972). The significance of life events as etiologic factors in the diseases of children: A survey of professional workers.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16, 7-18.
- Epstein, N., Baldwin, L., & Bishop, S. (1983). The McMaster Family Assessment Devic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9, 171-180.
- General Accounting Office. (1989). *Homelessness: Homeless and runaway youth receiving services at federally funded shelters*. Washington, DC.
- Gerhardt, V. (1979). Coping and social action: Theoretical construction of the life event approach. *Sociology of Health and Illness*, 1, 195-225.
- Hill, R. (1958). Social stress on the family: Generic features of families under stress. *Social Casework*, 39 (2/3), 139-150.
- Jackson, D. N. (1989). *Personality research form manual*. Port Huron, MI: Sigma Assessment Systems.
- Klein, D., & Hill, R. (1979). Determinants fo family problem solving effectiveness. In W. Burr, R. Hill, I. Reiss, & I. Nye (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1)*. New York: Free.
- Lazarus, R. S. (1966). *Psychological stress and the coping process*. New York: McGraw-Hill.
- Lazarus, R. S., & Launier, R.. (1978). Stress-related transactions between person and environment. In L. A. Pervin & M. Lewis (Eds.), *Perspectives in Interactional Psychology* (pp. 287-327). New York: Plenum.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 Springer.
- Leiter, M. P., & Maslach, C. (1988). The impact of interpersonal environment on burnou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9* (4), 297-308.
- Levine, R. S., Metzendorf, D. & VanBoskirk, K. A. (1986). Runaway and throwaway youth: A case for early intervention with truants. *Social Work in Education*, *8* (2), 93-106.
- Litwak, F., & Szelenyi, I. (1969). Primary group structures and their functions: Kin, neighbors, and friend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4*, 465-481.
- McCubbin, H. I., Larsen, A., & Olson, D. (1985). F-COPES: Family Crisis Oriented Personal Evaluation Scales. In D. Olson, H. McCubbin, H. Barnes, A., Larsen, M. Muxen, & M. Wilson (Eds.), *Family Inventories (Rev.)* (pp. 143-159). St. Paul, MN: Family Social Sciences, University of Minnesota.
- McCubbin, H. I., & Patterson, J. M. (1983). The family stress process: The double ABCX model of adjustment and adaptation. *Marriage and Family Review*, *6* (1/2), 7-37.
- Minuchin, S., & Barcai, A. (1972). Therapeutically induced family crisis. In C. J. Sager & H. S. Kaplan (Eds.), *Progress in group and family* (pp. 322-328). New York: Brunner-Mazel.
- Nowicki, S., Jr., & Strickland, B. R. (1973). A locus of control scale for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0*, 148-154.
- Olson, D. H., & Barnes, H. L. (1983). Quality of life for adolescent form. In D. Olson, H. McCubbin, H. Barnes, A., Larsen, M. Muxen, & M. Wilson (Eds.), *Family Inventories (Rev.)* (p. 104). St. Paul, MN: Family Social Sciences, University of Minnesota.
- Olson, D. H., Portner, J., & Lavee, Y. (1985). FACES III: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s Scales. In D. Olson, H. McCubbin, H. Barnes, A., Larsen, M. Muxen, & M. Wilson (Eds.), *Family Inventories (Rev.)* (pp. 1-42). St. Paul, MN: Family Social Sciences, University of Minnesota.
- Rotheram-Borus, M. J. (1991). Serving runaway and homeless youths. *Family and Community Health*, *14* (3), 23-32.
- Selye, H. (1976). *The stress of life (rev. ed.)*. New York: McGraw-Hill.
- Sharlin, S. A., & Mor-Barak, M. (1992). Runaway girls in distress: Motivation, background, and personality. *Adolescence*, *27* (106), 387-405.
- Stevens, J. (1986). *Applied multivariate statistics for the social science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